

사제로... 동무로... 함께라서 행복한 '화업 35년'



❶ 사제전 여는 유승우·강태웅 작가

■ ■ ■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다. 힘들어 주저 않았을 때 따뜻한 손을 내미는 이가 있다면, 사소한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가 있다면 행복한 삶이다. 사제(師弟), 친구, 가족, 선후배. 밀어주고 끌어주며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걷는, 문화 예술계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싣는다.

1979년 중앙대 교수·제자로 첫 인연

뉴욕 유학시절 편지 주고 받으며 교감

3월 4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짓’ 시리즈·‘순환’ 연작 선보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우리는 진정한 스승을 만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스승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일 터이다.

때로는 친구이자 동료로, 때로는 선배와 후배로, 스승과 제자로 지난 35년 동안 교감해온 광주 출신 유승우(68·전 중앙대 교수) 화백과 강태웅(54) 중앙대 교수. 함께 붓을 들고 지난 세월을 더불어 살아온 이들은 미술 그 이상의 것을 나누고 있다.

두 작가가 무등현대미술관(관장 정송규)의 초대를 받아 처음으로 사제전을 열고 있다. 오는 3월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 주제는 ‘강과 유가 함께’. 단순한 것 같지만 ‘함께’라는 말이 지닌 의미처럼 두 작가가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더불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유 화백과 강 교수가 처음 만난 것은 지난 1979년. 29세에 중앙대 최연소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유 화백을 당시 진흥고에 다니던 강 교수가 찾아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하면 서부터다. 이듬해 강 교수는 중앙대에 합격했고, 스승과 제자의 연인을 계속 이어나갔다.

유 화백은 “1980년대 민주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작품을 하는 강 교수가 믿음직스러운 제자로 큰 위로가 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미술을 뛰어넘은 둘의 인간적인 만남은 내면의 교감을 나누면서 더욱 깊어졌다.

유 화백은 20여 년 전 중앙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고향을 다



지난 35년 동안 미술로 동행해온 유승우 화백(사진 왼쪽)과 강태웅 중앙대 교수가 지난달 열린 전시 개막식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유승우 작 ‘짓’



강태웅 작 ‘Circulation 1412’

시 찾았다. 30여 년 간의 서울 생활에서 지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고향으로 내려온 그는 폐교에서 자연을 벗삼아 작품 활동을 이어 갔다. 지난 10여 년 간 장흥에 머물렀던 유 화백은 현재는 곡성 마삼분교에서 차를 즐기고, 책을 벗삼아 생활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인문학 모임을 통해 지

역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강 교수는 중앙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앙대, 전남대, 경상대에서 강사를 역임하고 지난 1998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펜실베이니아 주립 브롬스버그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뉴욕으로 이주해 작품활동을 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귀국, 현재는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강 교수는 미국 생활 중에도 유 화백과 깊은 정을 나눴다. 정기적으로 손 편지를 주고 받으며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깨달았다. 그건 유 화백도 마찬가지다. 강 교수는 한국에 들어올 때면 항상 유 화백을 먼저 찾았다.

유 화백은 “그동안 작품을 하면서 만난 많은 작가들이 소리없이 붓을 놓는 경우가 근자에 너무 많았다”며 “광주에서 마지막이 될 이번 전시에 동무와 함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유 화백은 이번 전시 이후 서울에서 전시회를 연 뒤에 붓을 내려놓을 계획이다. “너무 외롭고 쓸쓸한 지금 시대에 가족, 친구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계획”이라는 것이 그의 말이다.

강 교수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에서 겪었던 일들을 작품 속에 펼쳐보이는 일이 부끄럽기만 하다”며 “다구나 대학 시절 은사님과 함께하는 전시이다 보니 선생님의 화업에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유 화백은 ‘짓’(Mind Gesture) 시리즈를 선보인다. 낯고, 쓸모없는 것들에서 그 나름의 의미를 찾아 새로운 삶과 멋스러움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유 화백은 전시 기간 모두 70여 점의 작품을 3차례 나눠 순환 전시한다.

강 교수는 ‘순환’(Circulation) 연작을 전시한다. 어수선한 세상에서 모두가 자연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스스로 바른 인간성을 회복해 모든 일이 원만하게 순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작품이다. 문의 062-223-6677.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귀여운? 사악한? 로봇들

광주 롯데갤러리 日 데빌로봇 작품전

일본 인기 아트토이 디자인 그룹 데빌로봇(Devilrobots)의 작품들이 광주를 찾았다. 귀여운 로봇과 깜찍한 악마 등 다양한 아트토이를 선보인다.

광주 롯데갤러리는 겨울방학 기획전으로 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Hello! Devilrobots’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일본 5인조 아트토이 디자인 그룹 ‘데빌로봇’이 선보이는 한국에서의 첫 번째 단독 전시이다.

‘데빌로봇’은 일본 유명 아트토이 디자이너 기타이 신이치로가 소속된 곳으로, 기타이의 메인 캐릭터 토푸를 비롯한 다양한 캐릭터들을 디자인하고 있다. 더불어 ‘사악함’과 ‘로봇’이라는 두 특성을 한데 버무려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고 있다.

특히 데빌로봇은 그동안 디즈니, 코카콜라, 폴 스미스, 나이키, 리바이스 등과 함께 콜라

보레이션을 진행했다. 데빌로봇은 기업과의 협업 외에도 유명 뮤지션과의 콜라보 작업을 통해 독창적인 피규어를 개발하는 등 그래픽, 영상, 웹디자인, 토이, CD자켓, 의류 디자인 및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위주의 공간으로 꾸려진다. 데빌로봇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전시함과 동시에 인기 캐릭터인 토푸의 메인 작업을 모티브로 한 포토존, 메인 디자이너 기타이 신이치로의 작업실 풍경 및 드로잉백(아이디어 스케치 등)을 구성, 디자이너의 감성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문의 062-221-1807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Drive’



‘TO-FU Halloween’

‘천주교 용어집’ 개정판 출간

천주교 주교회의 용어위원회는 최근 ‘천주교 용어집’의 개정판을 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용어위원회는 지난 2000년 용어집 초판이 발행된 이후 사용한 용어들을 재검토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주교회의의 산하 여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모두 802개의 항목으로 용어를 새로 정리해 개정판을 펴냈다.

예를 들어 ‘특전 미사’의 경우 과거 초판에는 ‘주일과 의무 축일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드리는 주일과 의무 축일 미사’로 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판에서는 ‘현 교회법에서는 전날 저녁에 거행되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미사 참례의 계명을 이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전 미사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다(교회법 제1248조)’로 내용이 바뀌었다. 부록으로 성월과 특별 주일 명칭, 교황청 기구와 문헌 명칭, 외국 성인 등의 명단을 실었다. 168쪽. 3000원. 문의 02-460-7582~3. /연합뉴스

2015년 새해에도, 고객님 한분 한분을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모시는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메뉴 **떡국**개시
정성을 가득담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너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맞춤형 출장도시락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혼수가구
특가전**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